

## [전체공지]

오늘은 교회의 탄생일인 '성령강림대축일'입니다. 미사 중에 봉헌하고 들어가실 때 옆에 준비된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뽑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성당에서 하고 있는 성령강림대축일 이벤트이며, 신기하게도 자신에게 필요한 은사나 열매가 뽑힙니다. 교회의 공식 생일을 서로 축하하며, 성령의 은해도 가득 받는 날 되시고, 열매도 풍성히 맺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주신 최안젤라/이엘리사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 &lt;상식 퀴즈&gt;

1. 성령을 통하여 맺는 열매는 몇 가지이며 무엇일까요?
2.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몇 가지이며 무엇일까요?

## [코로나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1. 성당내 마스크 필수 착용
  2. 방송미사 참례시 전례분과장에게 알리기
  3. 표시된 좌석에만 앉기
  4. 주보를 인쇄하여 배부하지 않고, 단체 카톡 방에 공지
  5. 코로나 전염 예방 관련 이유로 'LIVE방송미사' 참례 가능
- \*\*\* 마스크 판매 중(개당 \$10, 수입금은 각 공동체 재정보조로 사용)

## [잭슨빌]

코로나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고리기도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게인즈빌]

##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공동체	주일봉헌금	교무금	기타	총 계
게인즈빌	\$235	\$430	에어컨: \$500(익명), \$100(이루비)	\$1,265
잭슨빌	\$118	\$1,470	감사헌금 \$100/ 사순단식 헌금 \$120 마스크수입 \$50 에어컨: \$200(익명), \$100(익명), \$1,000(윤마리아), \$100(윤데레사), \$1,000(강세실리아), \$500(렉시), \$200(함안드레아), \$100(익명) \$100(최크리스티나)	\$5,158

## 聖 최경환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

### St. Francis Choe Korean Catholic Mission

주임신부 김진모 펠릭스 (904) 909-5080 성당 (904) 573 - 1833

잭슨빌 성당 St. Francis Choe Catholic Mission, 8051 Rampart Rd. Jacksonville, FL 32244

게인즈빌공동체 St. Patrick Parish, 550 NE 16th Ave. Gainesville, FL 32601



聖 최경환(崔京煥) 프란치스코(1805-1839)

잭슨빌 한인 성당		게인즈빌 공동체	
주일 미사	매주 일요일 10시30분	주일특전미사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평일 미사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첫째, 셋째 금요일 저녁 8시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
성령 기도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성령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
성프란치스코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전 미사 후	-	-
성시간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미사 전	주일학교	매주 주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주일 저녁 7시	예비자 교리	-
사목회의	둘째 주 주일 미사 후	사목회의	첫째 주 주일미사 전
사목회	총무 이토마스 (904) 416-7437 /김스테파니아 (904) 613-9245	사목회장	천창준 레오 (352) 727-0452

www.stfccm.org  
www.facebook.com/St.FrancisChoe

## 오늘의 묵상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계속해서 일깨우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서는, 사랑을 위하여 닫힌 마음을 열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용서’의 삶으로 우리 신앙인을 초대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서로의 다름에 적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사도들 위로 내려오실 때, 사도들의 말씀을 저마다 자기 고장 말로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사도 2장 참조). 하나이되 서로의 다름이 존중받는 곳을 성령께서는 즐겨 함께하십니다. 단절과 반목의 자리, 굳이 다름을 같음으로 여겨야만 하는 곳에서 성령께서는 탄식하시며 아파하십니다.

성령을 받아 누리는 이들은 서로의 다름은 다름으로 놓아둔 채, 서로의 고유성을 감상하고 그 고유성을 찬미하는 데 열심입니다. 세상에 사는 누구라도 자신의 이름으로 존중받고 찬미받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일이 성령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성령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늘 새로운 다름을 향한 설레는 탐험의 여정입니다. 세상의 다양한 삶을 느끼고 체험하며 다채로운 세상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하는 일입니다.

오월의 마지막 날, 누군가에게는 잔인할 만큼 아름다운 날,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온 세상을 껴안는 벅찬 감동의 시간을 기념하고 축하해야 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삶에 함께해 주셔서 …….

(박병규 요한 보스코 신부)



## 성령 강림 대축일

[제1독서] 사도행전 2,1-11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화답송] 시편 104(103), 1ㄱㄴ과 24ㄱㄴ. 29ㄴㄴ-30.31과 34(◎30)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제2독서] 코린토 1서 12,3ㄴ-7.12-13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알렐루야

[복음] 요한 20,19-23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 <전례 봉사자>

공동체		해 설	제1독서	제2독서	봉 헌
이 번 주	게인즈빌 (5/30)	이호석 레오폴드	정필승 사도요한	전수진 마리아	-
	잭슨빌 (5/31)	윤미임 데레사	최차숙 마리아	렉시 베로니카	함 베로니카
다 음 주	게인즈빌 (6/6)	임윤미 플로라	백현 가브리엘	백준 빈첸시오	-
	잭슨빌 (6/7)	이교순 카타리나	송재민 하상바오로	김현희 아녜스	김정숙 켄마

### <미사 성가>

공동체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게인즈빌	278	586	115	298
잭슨빌	147	342	496	493